

그림으로 보는 인력실태 ③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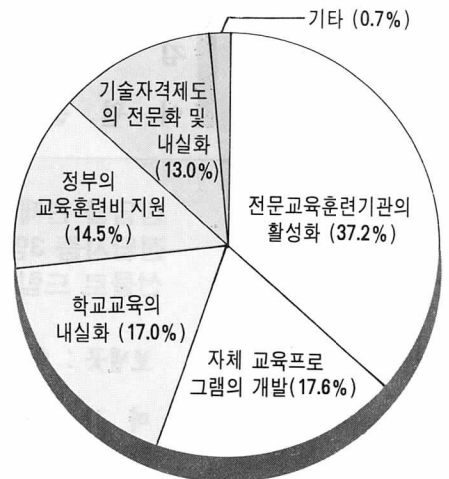
협회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통신관련
업체 55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인력실태를
조사하고 지난 3월 이 결과를 발표했다.
본지에서는 3월호 부터 각 기업들이 응답한
설문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그림을 통해
살펴본다편집자 註

I. 정보기술인력 수급 활성화 방안

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
산업체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
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의 활성화가 가장
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정보기술인력 수급 활성화방안에 대
해 조사대상 243개업체가 하나이상 제
시한 응답유형을 보면 전문교육훈련기
관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169개
사(69%)로 가장 많았으며, 그밖에 자체
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80개사(33%),
학교교육의 내실화에 77개사(32%), 정
부의 교육훈련비 지원에 66개사(27%),
기술자격제도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59
개사(24%)가 각각 응답했다.

〈그림 1〉은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이
지적하고 있는 정보기술인력 수급 활성
화 방안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
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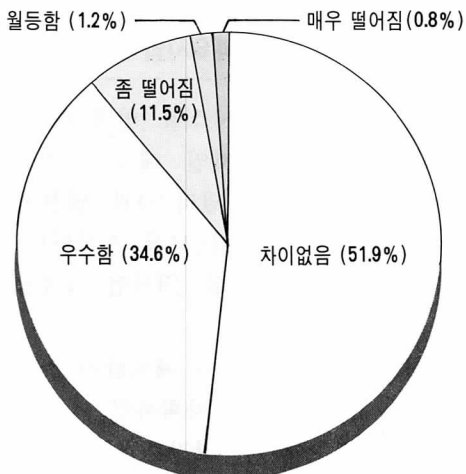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1〉
정보기술인력 수급 활성화 방안

II. 기술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비교평가

기술자격증 소지 여부가 현장 기술인력의 업무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제도의 재검토 및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.

현재 정보통신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들을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기술수준을 비소지자와 비교평가한 결과 조사에 응한 총 243개업체들 가운데 35.8%인 87개업체가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비소지자보다 우월하다고 한 반면 차이가 없다에 51.9%인 126개업체가, 수준이 오히려 떨어진다에 12.3%인 30개업체가 각각 응답해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

〈그림 2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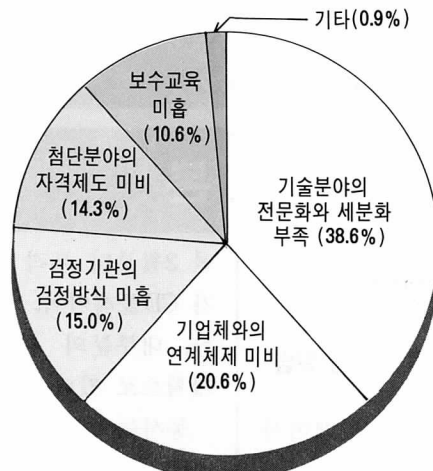
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

III. 현행 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

국내 정보통신관련업체들이 현행 기술자격제도에 대해 기술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조사대상업체중 총 243개업체가 한 문항 이상 응답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행 124개사(51%)로 가장 많았으며, 기업체와의 연계체제 미비에 66개사(27%), 검정기관의 검정방식 미흡에 48개사(20%), 첨단기술분야의 자격제도 미비에 46개사(17%), 보수교육의 미흡에 34개사(14%)가 각각 응답했다.

〈그림 3〉은 국내 정보통신업체들이 지적한 현행 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.



〈그림 3〉

현행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